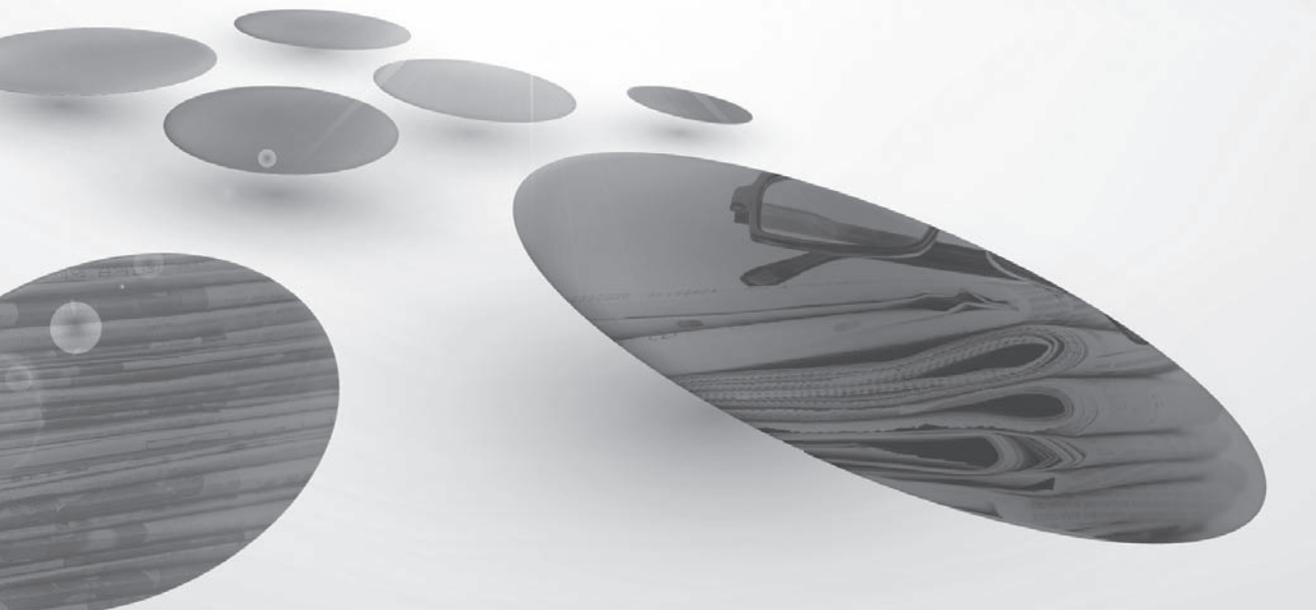




언론의 책임

Korea Press Ethics Commission



▲ 2011-1219 신문윤리강령 위반
스포츠조선 발행인 방준식

〈주문〉

스포츠조선 2011년 9월 6일자 1면 「육상지원, 삼성가에서 한다면…」 제목과 사진, 3면 「육상경기연맹회장… 이부진 사장이 말아라」 제하의 기사에 대하여 '주의' 조치한다.

〈이유〉

스포츠조선은 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를 계기로 한국육상이 세계수준에 엄청나게 뒤떨어져 있음이 드러남에 따라 차제에 한국육상에 대해 긴급제안을 한다는 취지로 1·2·3면을 할애해 제안성 기사를 게재했다.



〈스포츠조선 2011년 9월 6일자 1면〉

이 신문은 삼성그룹이 대한육상경기연맹을 맡아 운영해온 지 15년이 되었지만 뚜렷한 성과가 없었다는 것을 전제로 3개면에 걸친 기사를 통해 촉구성 제안을 했다. 그중 특히 1면은 기사 없이 「육상 지원, 삼성가에서 한다면…」이란 제목과 삼성 이건희 회장의 딸인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의 대형사진을 게재하고 3면에서는 ‘육상경기연맹 회장 …이부진 사장이 맡아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했다.

스포츠조선은 이 기사에서 이건희 회장은 국제올림픽 위원이고, 아들인 이재용 사장은 프로야구 삼성라이온즈에 관심이 깊고, 둘째 사위인 김재열 제일모직 사장은 대한빙상경기연맹 회장직을 맡고 있으므로 운동 경기에 관여하지 않고 있는 만딸인 호텔신라 이부진 사장이 나서야 한국육상의 미래가 열린다고 주장했다.

해설기사를 포함한 보도기사는 사실과 자기 의견을 명확하게 구분해 작성해야 하며 편견이나 이기적 동기가 개입해서는 안 된다.

위 기사는 언론사의 주장을 내세우는 사설이 아니라 해설성 기사이다. 그럼에도 1면에 이부진 사장의 대형사진을 게재하고 3면 머릿기사 제목으로 ‘육상경기연맹회장… 이부진 사장이 맡아라’라는 등으로 달면서 특정인의 특정 직위 취임을 관련 단체 등의 여론을 고려함이 없이 일방적으로 촉구하는 것은 비록 편견이나, 이기적 동기가 개입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사회적 공기인 신문의 정도라고 보기는 어렵다. 나아가 이는 언론이 ‘사회의 건전한 여론 형성을 위해 전력을 다해야 한다’는 신문윤리강령의 정신에도 어긋나므로 신문윤리강령 제2조 「언론의 책임」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